

정부, 내국세 연동 폐지… 교육계 “현장수요 미반영” 반발

정부,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개편
학령인구 변화 반영 새 산식 도입
교육계 “연동제 폐지 철회 촉구”

정부가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경제 여건을 반영해 교부금 증가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줄지 않는 데다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년부터 55년간 유지돼 온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 사이의 격차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년 43조1616억원에서 지난해 70조7542억원으로 10년간 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662만명에서 553만명으로 109만명, 약 16.5% 감소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부금 증가폭을 줄이는 것은 실제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이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고정적인 지출은 같은 비율로 감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15년 8만 8067명에서 지난해 12만735명으로 10년

새 37.1% 증가했다.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추가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늘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다른 해석을 내놴다. 교부금 총액이 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부가 제시한 ‘내년 교부금 2조5000억원 증가’만으로 교육재정이 줄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물가와 학교운영비, 급식비,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 등

확대되는 수요까지 고려하면 명목상 총액 증가와 실제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정 증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교육미래연대는 이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활용하면 될 일”이라며 성명을 내고 정부에 내국세 연동제 폐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교육재정을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 판단과 재정 여건으로부터 일정하게 독립시키고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며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한정된 재원을 놓고 경쟁시키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확충 책임을 교육 영역 내부의 갈등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유·초·중등 재정과 별도의 독립적 재원에 기초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대학 20곳, 내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교육부, 총 308개교 명단 발표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은 288개교
16개교, 장학금·학자금 전부 제한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학이 20곳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16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모두 제한되고, 4개 대학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학자금 지원 여부는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해 결정된다. 기관평가에서 미인증을 받은 대학은 재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장

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제한되는 ‘전부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전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 8곳과 전문대 8곳 등 총 16곳이다. 일반대는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참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 의과학대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서영대, 송호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다.

이 가운데 서영대와 여주대는 2027학년도에 새로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14곳은 2026학년도에도 전부 제한 대학이었다. 광양보건대는 오는 31일 폐교 예정이다.

기관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되면 ‘일부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일부 제한 대학은 상지대, 추계예술대, 국제대, 대덕대 등 4곳이며 모두 2027

학년도 신규 지정이다.

이들 대학의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받을 수 없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한은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다만 지난 해에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대학의 경우, 당시 제한 대상이었던 2026학년 학생들은 재학생이 된 이후에도 지원 제한을 계속 받는다. 반면 2027학년도에 처음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기존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은 모두 288개교다. 대학 기관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대학으로 평가된 일반·산업대 173개교와 전문대 115개교가 포함됐다.

/이현진 기자



교원보호전담관 발대식 사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원보호전담관’ 출범

사실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원보호전담관 제도를 공식 출범시키며 교원 침해 대응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조원청사에서 ‘교원보호전담관 발대식’을 열고 제도 출범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민석 교육감과 교원보호전담관 300명, 시민교원보호관, 명예교

원보호전담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마친 전담관들은 이날부터 교원 침해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지원한다.

전담관은 교원과 도민,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으로 구성돼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에 대해 사실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임진각 평화누리서 피크닉 즐기세요”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주관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경기도 문화사계 ‘가을’ 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임진각 평화누리의

넓은 잔디밭에서 돛자리를 펴고 음악을 즐기는 대표적인 피크닉형 축제다.

축제의 메인 공연은 19일 펼쳐진다. 모던록 밴드 넬(NELL)이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며 10CM, 선우정아, 너드커넥션, 서도밴드, 더픽스 등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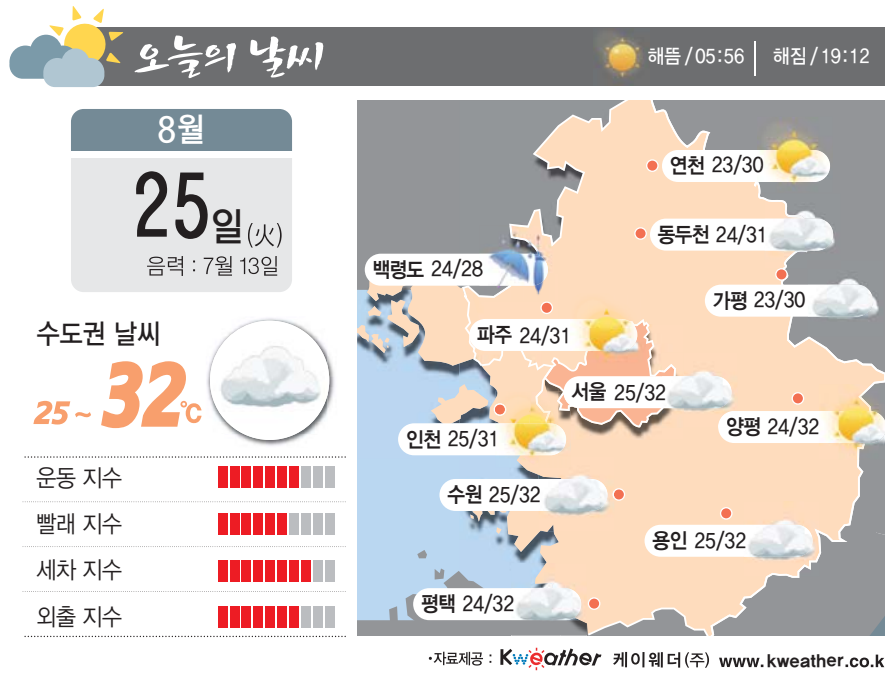
‘평화 Special Stage’에는 뮤지컬 배우 민우혁이 출연해 경기도DMZ의 평화

메시지를 담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피크닉존과 함께 무대 앞쪽에 지정석인 ‘스페셜존’을 새롭게 운영한다. 장시간 대기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개선했다.

티켓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예매처인 티켓링크를 통해 판매한다.

공연과 함께 ‘평화 바람개비 만들기’, ‘티투 스티커 체험’ 등 평화 체험 프로그램과 버스킹, 요가 등 평화누리 캠핑장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푸틴 결단만 남았다…대규모 동원령 임박설에 러 내부 혼란
▲일본 3대 은행 신입 채용 5년 만에 감소…AI 효율화가 바꾼 취업 시장 /사진 뉴시스

▲日다카이치, 식품 소비세 감세에도 지지율 최저…물가대체 불만 여전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국가비상사태’ 선포 하나…우려 확산

▲러, 나토 결의 시험…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생산 유럽전역 공장 파괴하나
▲美 부채 40조달러·국채금리 19년래 최고…워시 ‘잭슨홀 시험대’